한국언론의 공공저너리즘의 역할에 관한 고찰

신윤호*

A Study on the Policy Possibility for Public Journalism of korea Newspaper

Yun-ho Shin*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연구 자체가 단 3건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2건이 미국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들이기에, 국내의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의 역할을 저널리스트나 기획기사가 아닌, 언론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지난 16대 대선 과정에서의 보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온라인 신문이 공공저널리즘의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first online journalism in South Korea on the research itself in reality only have 3, only 2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study of online journalism deulyigie, in online journalism for the public to feel the necessity of research and These online agents not jeoneolriseuteuna the role of public journalism, the media can perform that role, she felt the need for the rest, in the process of the last 16 presidential election, as reported salpyeobomeu in South Korea of jourmalism online newspapers will want to research about the policy.

키워드

Internet, Newspaper, Journalism, Politics, Online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언론분야에서 2009년 초부터 미디어법 개정에 관한 공방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공저널리즘 실천에 관한 연구로는, 최 영(2002)의 온라인 신문에서의 시민저널리즘 가능성 연구: 일상적 실천을 중심으로의 연구와 윤태진, 강내원(2001)의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인스닷컴', '인터넷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기획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와 반 현(2000)의 가상공간에서 공공 저널리즘: 다른 전자 민주주의 가능성 연구가 있다.

우선, 최영의 경우는, 온라인신문에서 공공저널리즘의 일상적 실천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온라인 환경 하에서 공공저널리즘의 일상적인 실천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쇄신문과의 차이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한계는 미국에서 이미 공공저널리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비교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 호남대학교
1차수정일자 : 2009. 08. 16
접수일자 : 2009. 07. 19
심사완료일자 : 2009. 09. 03

하고 있다는 점과 서베이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1][2].

윤태진과 강내원의 경우는 주요 온라인 신문의 기획기사를 바탕으로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내의 다양한 사회층위 구성원들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는 저의 여부와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과정 중심의 보도가 이루여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은 비교적 고루 반영된 반면에 대안 혹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한계는 비교 대상이 없이 단지 몇 개의 온라인 신문사의 기획 기사만을 가지고 공공저널리즘의 기능을 하였는지를 분석할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분석을 위한 명확한 도구와 척도가 없다는 것이다.

반 현의 경우는 미국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의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결과, 그들은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결과, 그들은 공공저널리즘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논문의 한계는 언론사나 언론사의 보도가 아닌, 단지 저널리스트들의 태도만을 측정하였다는 것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의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연구 자체가 단 3건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2건이 미국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들이기에, 국내의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온라인 공공저널리즘의 역할을 저널리스트나 기획기사가 아닌, 언론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보도를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언론이 공공저널리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할려고 한다.

II. 공공저널리즘의 이론적 배경

2.1 공공저널리즘의 개념

공공저널리즘 또는 시민저널리즘은 언론의 보도 과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언론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언론이 시민들에게 공공생활(public life)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문제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사를 언론 보도의 중심적 의제(agenda)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란 정보에 정통한 공중(informed public)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기존의 저널리즘은 그런 공중을 길러내지 못했음은 물론 공중과 언론을 연결시키지도 못하였다. 이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공공저널리즘인 것이다[4].

2.2 공공영역의 쇠퇴

공공영역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하버마스는, 우선 공공영역은 시민들에게 공공문제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주는 언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5].

그런 점에서 언론은 정치나 공동체 문제와 같이 우리의 공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이슈들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가교자이다. 둘째, 언론이 보도한 공적 이슈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공중들 간의 대화와 토론은 문제의 해결에 다가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셋째, 대화와 토의는 공중여론을 형성한다. 넷째, 이러한 공중여론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면서 동시에 참여적 행위이다. 즉 공공영역의 문제는 정치사회적 공간과 시민을 연결시켜주는 언론의 역할, 시민모임과 같이 공중들 간에 숙의와 토의 공간, 그리고 시민을 참여시키고 동원시키는 제도나 기구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2.3 언론의 내적 위기

공공저널리즘의 연구의 개척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 로젠(Rosen. J)은 “오늘날 저널리즘은 오히려 정치체제와 시민들 사이를 분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은 변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널리스트들은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을 향상시키고 공공생활(Public life)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널리즘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실천 지향의 새로운 저널리즘 형태를 공공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하면서, 미국 언론이 여섯 가지 난제에 부딪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공공저널리즘은 이들 여섯가지 문제들로부터 파생된 결과라고 본다. 다시 말해, 미국 언론의 경제적(economic), 기술적(technology), 정치적(political), 전문직업적(occupational), 정신적(spiritual) 그리고 지적(intellectual) 측면이 문제라는 것이다[6].

2.4 John Dewey의 공동체 중심적 민주주의 사상

로젠은 자신이 밝힌 것처럼, 공공 저널리즘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실용주의 철학자 듀이(John Dewey)가 주장한 공동체 중심적 민주주의 사상이다. 즉 공공저널리즘은 공중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3자간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1920년대에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과 듀이(John Dewey)가 제기한 상반된 견해 가운데 듀이의 입장을 현대 미국사회에 다시 적용시키려는 노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7][8].

Lippmann은 당시 인간 심성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킨 이른바 신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기풍의 정치학 이론인, 민주적 현실주의(Democratic Realism)의 관점을 대변하였다. 이 이론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하여, 모든 사람이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론의 고전적인 명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리프만은 그의 저서 Public Opinion(1922)에서 대중은 왜곡된 스테레오 타입에 취약하며, 이를 시정해야 할 언론도 그 상업적 속성상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견을 모든사람이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리프만은 대부분의 사회현안에 대하여 공중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조작된 의견들만 무성할 뿐이라는 비관적 결론을 내렸다. 합리적 사고에 철저하지 못한 인간 본성의 한계와 산업사회의 구조적 제약에 주목한 리프만은 공중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다고 보았다.

2.5 공공저널리즘의 지향점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뉴스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메리트의 말처럼 독자가 단순히 뉴스를 읽는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은 공중의 질 높은 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시민이 문제의 해결책 모색에 참여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총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적 문제들을 다양한 사회층위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의 숙의(deliberation)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는 행위가 일어나는 공론장의 기능을 공공저널리즘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의 관행을 새로이 구축해보려는 기술적 차원의 노력이기보다는 공공생활(public life)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건강한 민주주의, 지역사회의 연결, 시민적 참여 등의 목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9].

III. 공공저널리즘의 내용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기에 최적의 시스템이 된 온라인 신문의 공공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신문의 공공저널리즘의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기사의 내용분석이다. 내용분석과 관련하여, 찰스 라이트(Charles Wright)는 그의 저서 「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매스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a Sociological Perspective)」에서,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미리 정해진 유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는 양적인 연구가 될 수도, 질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양적·질적 연구가 모두 진행되어야 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연구자가 할려는 내용분석은 질적인 연구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죠지 지토(George V. Zito)는 "내용 분석이란 글이나 말로 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체계적, 양적,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는 연구 방법이라 한다. 글로 쓰여진 언어는 전통적으로 질적인 분석의 대상이었다. 글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이란 소설, 편지, 유서, 잡지나 신문기사를 뜻한다. 이것은 커뮤니케이터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용 분석은 커뮤니케이터의 의도를 분

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그의 책 「방법론과 의미 : 다양한 사회학적 접근법에 관하여(Methodology and Meanings : Varieties of Sociological Inquiry, (1975)」에서 말하고 있다[10][11].

한편,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을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온라인 신문과 기존 언론에 반해 생겨난 대안 언론인 공공저널리즘이라는 연구 대상을 살펴 보았을 때, 일반 법칙을 만들어 여러 상황에 걸쳐 많은 것을 설명하려는 양적인 연구방법이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수한 설명을 구하려고 하는 연구방법이 보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12].

내용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조사가 연구 대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터뷰나 참여관찰법과 비교할 때 내용분석은 그 실행 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내용분석의 주제는 대개 그 당시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연구자는 본인의 시각을 데이터에 적용하여야 하는데 대개 역사적인 비교나 지역적인 비교를 통하여 이런 시각이 드러나게 된다. 때로는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예컨대 선거 기간 중 정치 광고물의 분석이 그 예이다[14][15].

한편, 코딩은 연구자와 사전교육이 이루어진 대학원생 1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코더들간의 신뢰도를 위해 양 10% 정도의 기사를 바탕으로 스콧(Scott, W.)의 방식에 따라 신뢰도가 조사되었는데, 조사결과 공공저널리즘 요소의 신뢰도는 평균 0.85였으며, 상호작용성의 경우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요소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유목을 설정하여, 각 기사에 그 유목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신문의 보도가 인터넷신문과 비교했을 때, 유권자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기제의 제공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실질적인 상호작용정도가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기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간에 오고가는 상호작용 메시지의 비율을 통해서 그 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내용분석을 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이나 채팅룸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쟁점이 되는 사안에 따라 상호작용메시지 비율을 측정하는 수량적 내용분석방법이다. 상호작용 메시지는 슐츠(Schultz, T.)의 정의에 따른 양방향성 개념인 1회적 피드백 메시지가 있는 경우를 상호작용 메시지로 간주하였다. 이런 실질적인 상호작용 정도를 바탕으로, 이런 상호작용이 공공영역을 활성화시켰는지를 확인하였다[16].

Ⅳ. 분석 도구 및 분석 척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인 도출한 코딩을 위한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

4.1 공공저널리즘 요소

① 기사는 일반 시민을 기사원(news source)으로 쓰거나 혹은 일반 시민을 인용하는가?
② 기사는 신문사 내부 스태프들에 의해 쓰여졌는가?
③ 기사에는 핵심가치(core value)가 내재되어 있는가?
④ 기사는 이슈관련 정보(thematic information)를 포함하고 있는가?
⑤ 기사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유도하는가?
⑥ 기사는 맥락적(con-textualized)정보를 제공하는가?
⑦ 기사 작성을 위해 여론조사를 사용했는가?
⑧ 기사 작성을 위해 공공포럼이나 타운홀 미팅을 이용했는가?
⑨ 기사 작성을 위해 포커스 그룹을 이용했는가?

4.2 상호작용적 요소

① 전자우편
② 전화
③ 온라인 투표
④ 질의/응답 섹숀
⑤ 친구/독자에게 기사 전송

⑥ 전자게시판(BBS)
⑦ 채팅방
⑧ 네티즌 리포트

4.3 분석척도

각각의 기사에 내재된 전술한 요소들의 유무(0/1)에 따라 공공저널리즘 척도(최고 9점 - 최저 0점)와 상호작용성 척도(최고 8점 - 최고0점)를 만들어 종합적인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정도를 살펴보며, 또한 각각의 기사에 세부적 요소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

공공저널리즘의 최우선의 목표는 일반시민의 정치참여와 토론을 통해, 그들의 이해가 정치과정이나 선거과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공공저널리즘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 수단이 온라인 신문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신문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 시켰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 쟁점이 되었던 사항(사대강 개발건, 미국산 수입 소고기 파동, 부동산 세금 감면, 수도권 개발에 관한 정책)과 검색어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각 기사에 공공저널리즘적 요소, 9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종합척도와 세부요소로 나누어 연구되어야 한다[17].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 뉴스의 보도가 인터넷 신문인 디지털 조선일보의 보도보다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기사에 공공저널라즘적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종합척도와 세부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각 쟁점사안 모두가, 비록 어떤 사안은 그 차이가 적을지라도 온라인 신문이 인터넷 신문보다도 더 많은 공공저널리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 온라인 신문의 보도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보다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더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기존 언론의 정치보도의 문제점이 공적 이슈를 시사화하는 데 있었다면, 온라인 신문은 일반 시민의 이슈를 공론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험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대안적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의 사적 경험을 보도하는 것은 기존 언론의 취재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한 또 다른 요소인 온라인 신문의 상호작용기제의 제공현황과 실질적인 상호작용 정도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상호작용기제 제공현황의 경우는 네티즌 리포트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은 이용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아가 특정 이슈를 주제로 커뮤니티를 형성토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공공저널리즘의 기능을 원활히 해주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에 대한 재반응을 하나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한 실질적인 상호작용 정도의 결과에서는 두 신문이 서로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8].

이는 비록 온라인 신문이 인터넷 신문보다는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온라인상에서의 공공저널리즘의 실천은 아직까지 활성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증거라 하겠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저널리즘이 시민을 소외시키며, 저널리스트나 전문가들만의 장으로 머무른 나머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며, 나타난 문제에 대해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일회적이고 대안없는 비판만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 시민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한 매스미디어 저널리즘에 대한 대안언론으로 생겨난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가능성을 온라인 신문에서 찾아보고자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 뉴스와 매스미디어에 가까운 인터넷 신문인 디지털 조선일보를 상호 비교하면서 온라인 신문의 공공저널리즘의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공공저널리즘의 실천 정도에 따라 공공저널리즘 모델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 어데이(Aday. H.)

의 분류에 따르면 가장 하위에 속하는 통합정보제공자(intergrated information provider) 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저널리즘의 구현에 있어 전통적인 저널리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화의 형태와 표현의 기제를 사용하는 혁선적인 동반자적 모델(prominent parter-ship model) 혹은 그 아래 단계인 시민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전통적인 기사 양식을 고수하는 중간 단계인 권력이양 모델(enhanced empowerment model)이 아닌 가장 소극적인 공공저널리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미국사회에서 발현되었던 공공저널리즘은 미국의 언론구조가 전국이 중심이 아니라 지역언론 구조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언론구조는 중앙지 중심에 기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보통신 산업의 활발한 인프라의 보급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공공저널리즘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저널리즘의 이론적 논의가 실제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에서 수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온라인 환경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문은 기존 신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지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기사의 내용 제작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상호작용 및 하이퍼미디어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맥락화된 저널리즘(contextualized journalism)이 가능한 온라인 신문은 전통적인 인쇄신문보다 관련된 이슈, 자료 및 사실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심층 보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기능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제가 반드시 인터넷미디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그러한 기제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과연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만약 수용을 한다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것도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인 것이다.

피에르 레비는 사이버공간의 인류학을 위해 집필한 그의 책 『집단 지성』에서 "집단 지성이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라고 말하며, 인터넷이 이런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적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다. 비록 아직은 온라인 신문의 공공저널리즘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1] 김민남, 공공저널리즘과 한국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120-125, 1998.
[2] 김영석,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pp.33, 1997.
[3] 김유정,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pp.20-33, 2001.
[4]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한울, pp.20, 1995.
[5] 박금자, 인터넷미디어 읽기, 커뮤니케이션북스, pp.102-104, 2001.
[6] 박동진,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pp.37-40, 2000.
[7] 성동규, 라도삼,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한울아카데미, pp.11-17, 2000.
[8] 안병길, 시민속의 언론, 공공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pp.39-42, 2003.
[9] 이상철, 언론발달사, 일지사, pp.29, 1992.
[10] Diana, C. M. 양승찬 역, 미디어 정치 효과, 한나래, pp.17-20 2000.
[11] Poster, M. 김성기 역, 뉴미디어의 철학, 밑음사, pp.123-130, 1994.
[12] Pussell Neuman, W. 전석호 역, 뉴미디어와 사회변동, 나남, pp.120, 1995.
[13] Wimmer R. D. & Dominick J. R. 유재천, 김동규 공역,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나남, pp.29-40, 1995.
[14] Dionne, Jr, E. T. Why Americans Hate Politics, Touchstone, pp.29, 1992.
[15] McKnight C. Andrew Dillon, john Richardson, Hypertext in Context, Cambrige University Press, 917, 1991.
[16] http://www.crj.org/year/95/5/civic.asp
[17] http://www.pewcenter.org/doingcj/research/r_doessit.html
[18] http://www.ntu.edu.sg/home/tblmassey/civic/cj.html

저자 소개

신윤호(Yun-ho Shin)

2000년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정치학 학사)
2003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언론학 석사)
2007년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수료
2007년 테네시 주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수학
2009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공공저널리즘, 멀티미디어와 통신